

나토 '핵무기 실전 배치' 논의...고조되는 '핵 위협'

美 핵무기 기준 5곳 외 다른 국가에도 배치 가능성 러시아 핵 위협-中 핵탄두 증강에 나토 대응 주목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핵탄두 보유량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전년 대비 109기 감소한 4380기, 미국은 전년과 같은 3708기라고 SIPRI는 지난 16일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해 410기에서 올해 500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국은 핵무기 증강과 함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SIPRI는 설명했다.

SIPRI는 중국의 핵탄두가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적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향후 군사력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수준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소량의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SIPRI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 확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지적했다. 핵 무장국들이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관련해 세계 최대 핵탄두 보유국인 러시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12월 러시아 서남부 국경 근처 쿠르스크주 공항 등에 드론 공격이 있는 직후 이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보고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그걸 왜 부인하느냐"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당국자들이 언급하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보면 '국가존립 위협'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가 해당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개입이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러시아

본토 반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많은 핵탄두가 실전배치돼야 하고 어떤 것이 보관고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작전상 세부사항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관고에서 꺼내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의미에서 주목됐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에는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된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있으며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국에도 미국의 전술 핵무기 등이 배치돼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 '핵공유 협정'(nuclear-sharing arrangements)을 맺고 있다. 이를 흔히 '나토식 핵공유'라고 한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발언은 나토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 사용 가능한 핵전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그는 나토의 목표가 '핵무기 없는 세계'라고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나토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더 위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핵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기존의 5개국 외에 다른 나라에도 추가로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공영 라디오방송 P1 모론(P1 Morgon)과 최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리 영토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미국 전술핵무기의 배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전했다.

연합뉴스



'3선 도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음 달 28일로 예정된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금 사랑' 중앙은행들...선진국들도 매수 행렬

선진국 중앙은행 60% "5년 내 금 보유 비중 늘리겠다"

선진국들이 이어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를 늘리려 하고 있다.

대신에 달러와 보유는 줄이는 추세다.

18일(현지시간) 산업 진흥단체 세계금협회(WGC)의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진국 중앙은행의 60% 가까이가 향후 5년 동안 자산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의 38%보다 증가한 수치다.

당장 내년에도 금 보유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한

선진국 비율은 13%다. 작년의 8%에서 늘어난 것이며, 5년 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로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들였다. 이제 선진국들도 신흥국처럼 금 보유를 늘리는 추세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달러와 보유 비중은 줄인다는 입장이다.

56%가 향후 5년 동안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의 46%에서 증가했다.

신흥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64%가 이 같은 견해를 밝혀 달러와 비중 축소 경향이 더 강했다.

올해 금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요가 늘어난 것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면서 달러화를 무기화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와 비중을 줄이고자 보유 자산 다각화를 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호주총리 연봉 5.6억원 '세계3위'...美대통령보다 많아

싱가포르 총리 22억 '압도적 1위'

호주 총리 연봉이 약 5억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연봉이 많은 정부 수장이 됐다.

19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 정치인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독립 보수 위원회는 지난 17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연봉을 전년 대비 3.5% 인상한 60만7520 호주달러(약 5억5850만원)로 결정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40만 3000달러 수준이다.

AAP 통신은 앨버니지 총리 연봉이 전 세계 정

부 수반들이 받는 공식 연봉을 기준으로 세계 3위가 됐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연봉보다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연봉은 40만 달러(약 5억5170만원)로 2001년 20만 달러에서 40만달러로 두 배로 인상된 뒤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정부 수장은 로런스 워 싱가포르 총리로 연봉은 220만 싱가포르 달러(약 22억4630만원)다.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2위는 약 52만 스위스프랑(약 9억1090만원)을 받는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이다. /연합뉴스

"틱톡, 아동 사생활 보호법 침해 소지"

미국 연방거래위 주장

중국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아동의 개인 정보를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틱톡이 1998년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과 다른 연방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하려 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AF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TC는 이 문제를 법무부에 넘겼다.

FTC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회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FTC는 이번 조치가 2019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조사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틱톡은 당시 틱톡 앱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위치 등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FTC로부터 570만달러(약 79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틱톡은 COPPA를 준수하는 조치도 하기로 했었다.

FTC의 이번 조치에 대해 틱톡은 엑스 계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FTC와 협력해왔는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대신(법무부) 회부를 택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C가 제기한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해결됐거나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틱톡은 지난 4월 미국 사업권을 270일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

틱톡은 이번 강제매각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